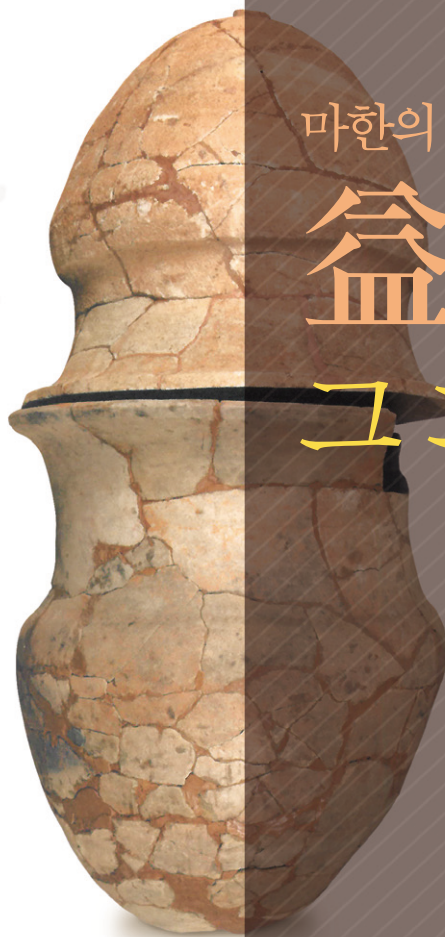


馬韓



마한의 중심

益山

그 회고와
전망

일시 _ 2018. 11.22^木
13:30 ~ 18:00

장소 _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 2층

주최  익산시

주관  馬韓·百濟文化研究所

마한의 중심 '익산益山' 그 회고와 전망 학술회의

2018. **11.22** (목) 13:30~18:00 /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2층
 ■ 주 최 _ 익산시 ■ 주 관 _ 원광대학교 마한·백제문화연구소

초대합니다.

원광대학교 마한·백제문화연구소와 익산시는 오는 11월 22일(목) 「**마한의 중심 '익산益山', 그 회고와 전망**」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. 기원전후 일정기간 동안 한반도의 중서부지역은 '마한'이라는 정치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역사적 공간이었으며,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점차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.

세계유산도시 익산은 백제의 왕도일 뿐 아니라, 마한의 고도였다는 사실을 고려사 등 문헌기록과 율촌리고분 등 고고학적 자료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. 이 점이 바로 백제왕도 익산이 지닌 공주, 부여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. 이에 최근 밝혀진 마한의 고고학적 성과와 연구현황을 통하여 한국사상 마한문화의 위상과 마한문화 속에서 익산의 위치를 회고하고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

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익산 마한문화의 활용에 대한 고민도 다루었습니다.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1.
 익 산 시 장

원광대학교 마한·백제문화연구소장

등록 / 개최

· 사회 : 이다운(원광대학교)

13:30 ~
 13:45

개회사, 환영사, 축사

15:15~
 15:30

휴 식

1부 주제발표

■1주제■

마한의 시작과 종말

13:50 ~
 14:15

발표 : 박순발(충남대학교)
 토론 : 박중환(국립중앙박물관)

■2주제■

호남 서남부지역 마한과 백제와의 관계

14:15 ~
 14:45

발표 : 이정호(동신대학교)
 토론 : 김낙중(전북대학교)

■3주제■

최근 중부지방 마한의 연구현황

14:45 ~
 15:15

발표 : 서현주(한국전통문화대학교)
 토론 : 성경용(충북대학교)

2부 주제발표

· 사회 : 이문형(마한·백제문화연구소)

■4주제■

호남지방 마한 분묘유적의 연구현황

15:30 ~
 16:00

발표 : 김종엽(원광대학교 마한·백제문화연구소)
 토론 : 이영철(대한문화재연구원)

■5주제■

익산지역 무형문화 유산의 축제화 연구

16:00 ~
 16:30

발표 : 박태건(대안문화연구소)
 토론 : 이덕순(문화관광산업연구원)

16:30 ~
 16:45

장내정리

종합토론

· 좌장 : 최완규(원광대학교)

16:45 ~
 18:00

마한의 중심 '익산益山', 그 회고와 전망